

손상된 치조골 재건을 위한 골이식 치료에의 GBM (Gelatinized Bone Matrix)과 DLB (Human Skull Demineralized Lyophilized Bone Power)의 임상적용 증례

김윤상, 현하나, 유형근,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골이식술을 이용한 치주 치료의 목적은 치주낭 감소나 제거, 임상부착의 획득, 상실된 치조골의 획득 및 치주 조직의 재생이다. 골이식술은 신생골, 신생백악질, 신생치주인대의 재생을 보이지만 대부분 긴 접합상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치조골 이식술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 있으며 골 반응도에 따라 골 생성 이식재, 골 유도성 이식재, 골 전도성 이식재, biologic filler로 분류된다. 많은 이식재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상적인 치조골 이식재의 성질인 골 형성 유도능력, 백악질 재생능력, 상피 상향 부착력, 숙주친화성, 채취의 용이성과 독성, 면역거부반응, 환자와 술자에게 불편감이 없어야 하는 정도를 만족할만한 완전한 치주 재생을 유도하는 이식재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조직은행에서 개발한 GBM은 탈회동결건조골(DFDBA)로 늑골에서 monocortical strip 형태로 채취하여 자체로서 골이식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외측은 매끄러워 bone power를 적용한 후 차폐막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화되면서 젤라틴화되어 치조골과 치주조직에 적합성이 우수하고 봉합이 필요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께도 약 1mm 내외의 일정하게 부피가 유지되며 분말 형태의 골 이식재 대용으로 결손부에 말아서 이식하기도 한다. DLB는 두개골(intramembranous origin)에서 처리한 bone powder로서 이전의 골 이식재를 대신하여 적용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한국조직은행에서 개발된 GBM과 DLB를 여러 치조골 손상부위에 적용한 증례에 대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follow-up check된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